

첨단교육의 현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매체개발연구소를 찾아서



열린 TV대학 'OUN'

대학로에 위치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정문을 들어서면 나무 몇 그루와 함께 벤치 몇 개가 놓인 작은 휴식공간 뒤쪽으로 5층짜리 건물 한 채가 눈에 들어온다. 이 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방송대학TV OUN' 이란 로고가 이곳이 교육방송국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EBS 말고 또 무슨 교육 채널?' 하지만 이런 의문은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금세 살아진다.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둘러본 건물 내부는 긴장과 이완이 교차하고 있었다. 촬영중인 스튜디오의 분위기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러다 담당 PD의 휴식 사인이 떨어지면 금방 동네 시장통처럼 왁자지껄 소란스러워진다. 방금 전에 그렇게 진지한 표정을 짓던 출연진과 촬영 스태프들의 얼굴은 동네 아이들처럼 되어 버린다. 출연진 중에 낯익은 얼굴도 있었다. 얼마 전 그가 진행자로 출연한 프로그램을 본 기억이 난다. 다시 "큐" 사인. "인터벳은 어디서 시작되었다구요...?" 진행자는 곧바로 원고를 읽어내려간다.

편집실과 송출실은 밤샘 작업을 한 탓인지 몇몇 사람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다음 프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작실은 다시 긴장 속으로 빠져든다고 동행한 관계자는 귀땀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방송을 보며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한다.

현재 방송대학TV를 통해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방송통신대학생들을 위한 '방송강의'와 일반인들을 위한 '평생교육과정'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TV로 수업을 들어야 하는 방송대 학생들에겐 방송강의 시청이 필수. 일반인들의 경우엔 학원 등을 이용해 강의를 듣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해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다.

열린 학습사회 선도가 목표

방송대학TV를 운영하는 곳은 방송통신대학교 교육매체개발연구소. 방송대학TV와 같은 건물 안에 있다. 연구소는 열린 학습사회를 선도한다는 방송대학교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1984년 12월 10일 문

을 열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각종 교육프로그램들은 케이블TV 채널 47로 방송되고 있다. 특히 금년 3월부터는 위성 채널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중계유선과도 연결해 방송강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OUN방송 시청이 가능하다.

연구소는 국민들이 경제, 지리, 연령 등의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강의실 없이도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집에서도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연구소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강의를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매체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주로 텔레비전·라디오·비디오 등의 매체가 이러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인터넷 등과 같은 첨단 매체의 등장으로 학습자의 매체 선택폭은 과거보다 훨씬 넓어지고 있다. 학습자는 이러한 매체들을 이용해 원거리에서도 강사의 강의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연구소는 이외에도 TV 강의용 소프트웨어와 CD롬 타이틀, 디지털 라이브러리, 인터넷 코스웨어 등

의 '첨단원격교육매체'를 통해서도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서울 등 전국 15개 지역학습관을 연결, 원격시간에 실제 강의상황에 가장 근접한 환경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원격영상강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학생은 강사와 직접 대화도 나눌 수 있는 등 현장감 넘치는 강의를 들을 수가 있다. 그리고 방송강의시간을 맞출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테이프 복사 및 배부'를 통해 학습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클릭! 클릭! 인터넷으로

연구소는 요즘 인터넷 이용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정보통신 부문 강좌를 강화하고 있다. 인터넷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값싸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케이블 채널만 연결되어 있으면 누구나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에 필요한 지식을 간편하게 습득할 수 있다.

연구소는 이번달부터 '웰컴 파워 인터넷', '접속 넷스쿨' 등 현재 방송중인 프로그램들 외에도 정보검색사 과정을 새로 내보내고 있다. 인터넷 상의 수많은 정보 속에서 가치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찾아내는 능력이 최근 부각되면서 이번에 신설된 프로다.

이들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인터넷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들을 겨냥한 것들이다. 이와 관련해 TV제작부 박진수 PD는 "현재 방송중인 프로그램들뿐만 아니라 이번에 신설되는 정보검색사 과정은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보자용"이라며 "전문가 과정은 이들 초보자 과정에 대한 반응을 봐가면서 차후에 신설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제2의 EBS로 키울 겁니다”

국내 최초의 원격교육용 케이블 채널인 OUN. 일반인들에겐 다소 낯설 수도 있는 이름이다. 하지만 채널을 돌려보면 의외로 유익한 프로그램이 많은 것에 놀라게 된다. 그 비결을 들어보기 위해 방송사의 사령탑인 광노현 교육매체개발연구소 소장을 만났다.

“우리의 목표는 제2의 EBS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규모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키워서 더 많은 사람들이 OUN프로를 시청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는 앞으로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연구소를 운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선,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하니까요. 두 번째는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할 것입니다. 앞으로 사회는 더 다양화될 테니까 프로그램도 여기에 맞게 다양해져야지요.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PD들을 교육 전문직으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자기가 만드는 프로그램에 대한 완벽한 이해 없이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광 소장은 최근 등장한 인터넷 등의 첨단 매체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도 한마디 덧붙였다. “최근 등장한 인터넷 등의 매체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상호 작용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의 매체는 그런 점에서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앞으로도 이들 매체는 계속해서 이용될 걸로 봅니다. 그 나름의 장점이 있으니까요. 따라서 방송대학TV의 역할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노현 소장